

애질런트, 광주에 LED 공장 건설

6월 2차실사 거쳐 8월 이후 최종결정 예정 ... 싱가포르와 치열한 경쟁

계측기 및 반도체 다국적기업인 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의 광주 LED(발광 다이오드) 공장 건설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8-9월 내려질 전망이다.

한국 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의 윤승기 사장은 3월23일 빌 설리번 회장 방한 기자간담회에 배석, “6월 2차 실사할 계획이며, 본사의 2006년 예산 확정이 9월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확정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2차 실사를 통해 각 투자주체의 부정적 시각을 바꾸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며, 현재는 LED공장 건설이 싱가포르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LED 공장 건설 최적 후보지로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본과 타이완에 비해 각종 인센티브가 풍부한 한국과 현재 LED 공장이 있는 싱가포르가 선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빌 설리번 회장은 한국시장의 비중과 중요성에 대해 “한국이 애질런트의 3-4번째 큰 시장이고, 특히 무선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정보통신)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첨단기술 및 관련 솔루션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설립된 아시아 모바일센터와 관련 “아시아센터에서 개발된 제품은 자사의 세계 유통망에서 판매될 것이며, 센터에서 개발하는 레퍼런스 플랫폼에 국내기업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지역 고객들에게 국내기업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3/24>